



# 여름철 화상 관리

여름철에는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져 사람들은 최대한 신체를 노출시켜 시원함을 유지하고자 한다. 따라서 뜨거운 수증기나 국물에 데거나 다리미 등의 뜨거운 쇠붙이에 의해 접촉화상을 입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경우 심한 통증과 상처가 생기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기 마련이다. 일부의 사람들은 간장이나 된장, 알로에 등을 상처에 바르는 등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상처를 치료하다가 상처를 키워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창상을 그대로 노출시켜 세균에 의한 감염이 발생되어 얇은 화상이 더욱 깊어져 치료만으로 나올 수 있는 상처를 피부이식술 등의 수술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또한 수술을 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화상흉터가 많이 남게 될 수도 있어 초기의 화상관리가 중요하다 하겠다.

과연 독자들은 화상상처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초기에 상처를 어떻게 돌보는가에 따라 평생 화상흉터의 멍어를 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관리적인 차원에서 일반인들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화상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화상이 생겼을 때의 처치는 일반적인 열창 때의 처치와는 다른 점이 있다. 우선 열에 의해 피부가 손상을 받아 이를 식히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찬물로 창상세척)이 간과될 경우 이차적인 열 손상이 생겨 실제적으로 발생초기에는 얇은 화상이었으나 깊은 화상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화상에 의한 상처는 손상된 피부로 인해 노출된 생살을 어떻게 세균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느냐 하는 점이 문제가 되며 이를 예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1. 일반적인 초기처치

## 가. 창상 세척

화상을 입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상처부위를 찬물로 깨끗이 씻어 주는 것이다. 이는 화상상처 치료의 기본이자 화상 첫 단계에서 시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처치다. 그냥 물에 담그지 말고 흐르는 물에 씻어내야 상처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할 수 있으며, 특히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국물이나 쇠붙이 등에 데인 경우와 화학약품 등에 의해 데인 상처일 경우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씻어내야 한다. 이 경우 물론 물은 깨끗해야 한다. 집에서는 샤워기나 수도물을 틀어서 상처 부위를 씻어내도록 한다.

## 나. 창상 소독

더러운 이물에 의한 화상일 경우 찬물로 충분히 씻어낸 후, 과산화수소나 베타딘류의 소독액을 사용해도 좋다. 단, 상처가 나면 무조건 소독약을 발라주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소독약에 따라서는 화상 상처 부위를 자극하여 화상을 입은 조직을 더 파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처의 경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상처를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다. 수포의 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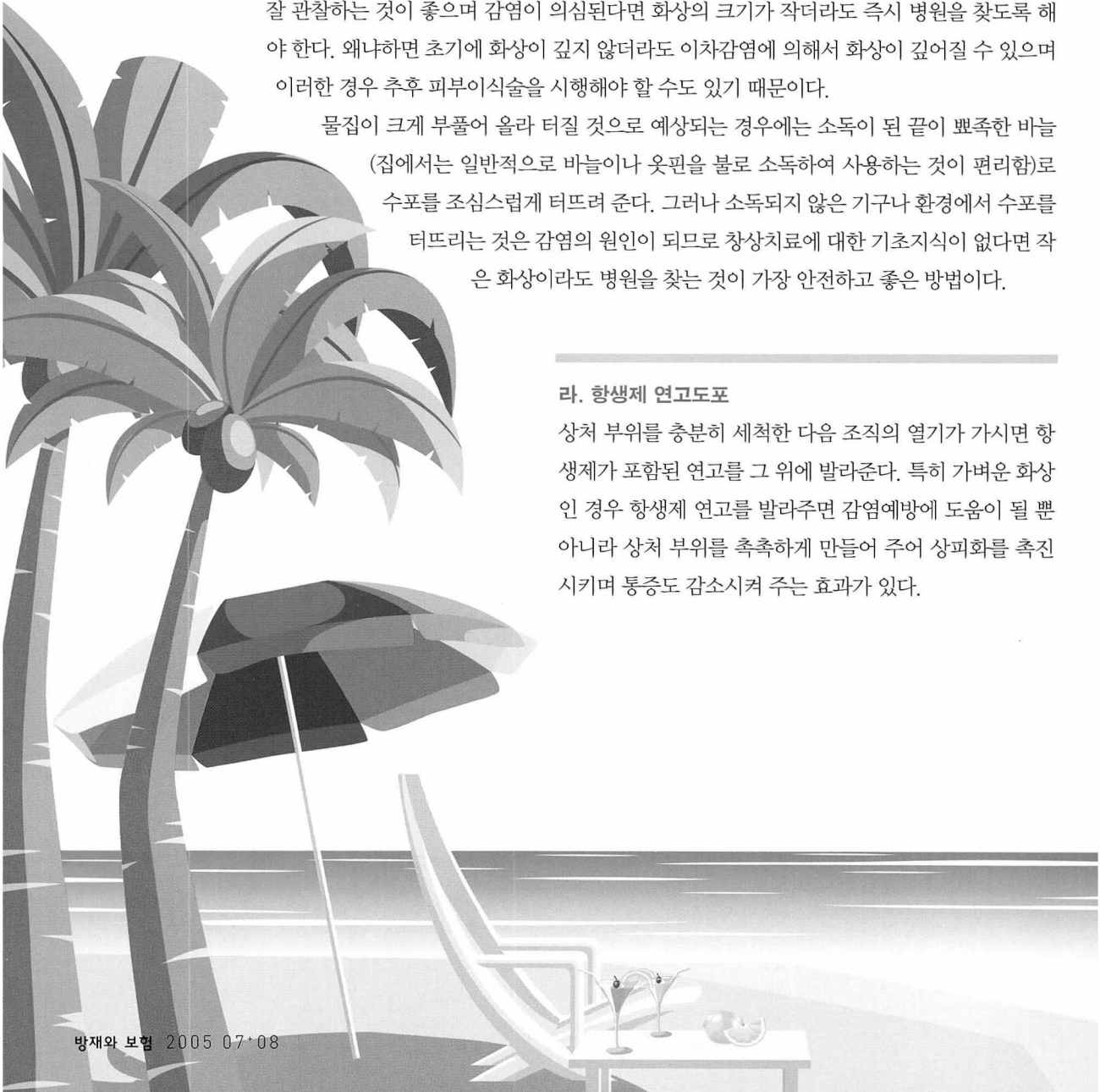
얇은 화상의 경우 피부의 발적과 동통은 있지만 수포는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2도 이상의 화상이 되면 수포를 동반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수포를 터뜨려야 할지 아니면 터뜨리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수포는 화상상처와 외부환경을 차단하여 그 자체가 완벽한 드레싱 효과를 나타내므로 일부러 터뜨릴 필요가 없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터졌다면 상처를 소독하고 물집을 덮고 있던 피부를 잘 눌러 붙여줘야 한다.

물집이 터진 경우에는 감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적, 부종, 화농 등 화상 부위의 감염여부를 잘 관찰하는 것이 좋으며 감염이 의심된다면 화상의 크기가 작더라도 즉시 병원을 찾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초기에 화상이 깊지 않더라도 이차감염에 의해서 화상이 깊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추후 피부이식술을 시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집이 크게 부풀어 올라 터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독이 된 끝이 뾰족한 바늘(집에서는 일반적으로 바늘이나 옷핀을 불로 소독하여 사용하는 것이 편리함)로 수포를 조심스럽게 터뜨려 준다. 그러나 소독되지 않은 기구나 환경에서 수포를 터뜨리는 것은 감염의 원인이 되므로 창상치료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다면 작은 화상이라도 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다.

#### 라. 항생제 연고도포

상처 부위를 충분히 세척한 다음 조직의 열기가 가시면 항생제가 포함된 연고를 그 위에 발라준다. 특히 가벼운 화상인 경우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면 감염예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상처 부위를 촉촉하게 만들어 주어 상피화를 촉진시키며 통증도 감소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 2. 지속적인 화상처치



### 가. 창상치료

화상이 심하지 않고 작은 부위에 국소적으로 생겼을 경우에는 상처가 나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에서 치료를 하게 될 경우가 생긴다. 화상은 첫 24시간에서 48시간까지가 삼출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는 소독된 거즈를 일반적인 창상치료 때보다 충분히 두껍게 대주는 것이 좋다. 만일 거즈를 얇게 대어 삼출물이 바깥쪽으로 젖어 나오게 되면 젖은 거즈를 통해 세균감염의 위험성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또한 화상 초기 2~3일간은 매일 상처를 확인하되, 필요하면 처음과 같이 세척과 소독을 반복해 주도록 한다. 그러나 상처가 외부 자극을 받지 않게 한다는 취지에서 무조건 붕대나 밴드로 꽁꽁 싸두는 것은 좋지 않다. 상처 부위의 호흡을 막아 회복이 더디고 나중에 붕대를 떼어낼 때 거즈가 상처에 달라붙어 치료시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거즈를 상처에서 떼어내는 과정에서 막 생기기 시작한 상피(피부세포)가 거즈에 달라붙어 떨어지게 되면 피가 나며 창상치유를 더디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치유 기간도 빠르고 딱지도 생기지 않게 도와주는 습윤 드레싱제가 출시됐는데, 이들 제품은 물과 세균은 막고 공기는 통과시키며, 삼출물을 흡수한다. 또한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여 상피가 원활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어 화상상처를 빠르게 치유시켜 최근 각광받고 있다. 이들 습윤 드레싱 제품은 상처에 달라붙지 않아 교체시 아프지도 않으며 한 번 드레싱하면 2~3일 정도 사용할 수 있어서 치료가 간편하다.

### 나. 치료 후 상처관리

화상이 나온 다음에는 직사광선은 피하는 것이 좋다. 흔히 화상이 나온 다음에 상처 부위가 불그스레한 색을 띠며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직사광선을 받으면 까맣게 변색하여 회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약 석 달간은 직사광선 및 반사광선까지도 직접 쏘이는 일은 피하도록 하며 이후 석 달간은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한다.

